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인프라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 목적)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

→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 (사업내용)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으로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年 사업비의 50% 지원, 대학·지자체 매칭 50%)

* 대형: 6억(정부 3억) / 소형: 2억(정부 1억)

- ☐ (예산/재원) 18,200백만원('21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대학일자리센터)	22,000	-	21,915 (99.6)	18,200	△3,800	△17.3

-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주요 지원대상) 대학, 대학생 및 졸업생, 미취업 청년 등

□ (전달체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공모(지원축소·중단되는 센터가 있는 경우 등), 지방청 1차 심사, 본부 2차 심사, 우선협상대학 선정
 * 사업공고 → 접수·심사(1·2차) → 우선협상대학 선정 → 협약 체결(고용센터·대학) → 사업개시 → 지원금 신청·지급 → 이행상황 점검 → 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사업기간: 금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2020년 참여자는 총 38,997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2.9%,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53.1%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42.1%(16,434명), 여성은 57.9%(22,563명)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청년이 99.7%(38,895명)로 대부분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인프라 전체	73,482 (100)	21,397 (29.1)	52,015 (70.8)	39,600 (53.9)	4,857 (6.6)	11,520 (15.7)	17,375 (23.6)
대학일자리 센터	38,997 (100)	16,434 (42.1)	22,563 (57.9)	38,895 (99.7)	96 (0.2)	6 (0.0)	0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동 사업은 대학 진로취업역량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전달체계로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지원
 - (관련 정책) 저학년부터의 전공별 진로지도 강화, 대학생이 노동시장에 나오기 이전 재학생 때부터 취업 및 창업지원 제공을 위한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2015.6) 및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 7, 관계부처 합동) 세부 추진과제인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와 관련된 사업임
 - (청년 고용상황)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휴학이나 졸업유예 등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일자리 쏠림현상이나 전공-직장 간의 불일치 다수 발생
 - (내역사업목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지원하여,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자리사업 성과 측면에서 청년층이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고용 정책과 프로그램을 인지하는 주요 경로로 자리매김
 - (인프라 구축) 진로·취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년 소형 5개교를 추가 선정, '20년 대학일자리센터를 108개교로 확대
- * ('19) 105개교(소형47/전문대26) → ('20년) 108개교(소형49/전문대26)
- (사업 내실화) 적극적인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층 대상 높은 인지도(89.7%)와 만족도(85.7%)를 달성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성과) 진로·취창업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재학생 수 대비 62.2%가량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 대학생 및 청년층이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설정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
 - * 주로 4년제 대학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 컨설턴트를 통한 진로상담, 대학당 각 50여 개의 교과목 개설 및 대면·비대면 진로프로그램 운영
 - (청년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청년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인지경로 중 대학일자리센터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층이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인지하는 주요 경로로 자리매김
 - (취업연계)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프로세스 과정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과 상담서비스 위주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취업실적 및 사후관리는 취업지원처에서 주로 관리
-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 계획이 타당하고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이 내실이 있게 운영
- (계획의 타당성) 예산 및 대학선정 등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이 내실이 있게 운영
 - (성과관리) 교육부, 여가부 관계자 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을 선정하고, 사업기간 중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사업유형 전환 및 인센티브 불이익을 부여
 - * 권역별 집단컨설팅, 대학별 서면컨설팅, 평가 미흡대학 집중 컨설팅, 신규 및 유형 전환대학 현장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연2~3회)
 -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취업 프로그램 개설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확산에 따라 비대면 과정의 장점을 활용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
- 제도 개선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 등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정량실적 조정 노력
- 대학일자리센터 협의회의 세미나 운영, 관계자 간담회, 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TF 대학일자리센터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 비대면 프로그램 실적반영, 사업비 활용기준 완화, 현장의견 적극 반영한 지표의 조정